

지난 2014년에 성가포르에서 지작된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는 '뷰티풀 마인드 채리티'에 소속된 장애 청소년 음악교육 기관이다.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청소년들이 연주하는 감동의 음악회 '뷰티풀 마인드 콘서트'는 발표회 형식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국적과 언어 그리고 피부색,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한 아름다운 연주로 청중들을 사로잡는 무대는 그 어느 연주회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왜냐하면 감동의 눈물과 기쁨의 미소를 동시에 짓게 하는 콘서트이기 때문이다. 이번연주회에 초대된 한국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의 학생 이강현의 피아노 독주와 학생 허지연의 클래식 기타 독주 및 교사인기타리스트 정욱과의 이중주, 첼리스트 배일환의 연주는 무대를빛내 줄 것이다. 싱가포르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에서 수학한 연주자들과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서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청중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연주자들의 의연한 모습과 새로운 희망을 현장을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함께 나누는 진한 우정을 느끼게 하는 '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의 연주회는 싱가포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지 음악적 재능뿐만 아 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음악 전공 교사들의 전적인 헌신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 르 장애 청소년들이 아픔을 딛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원봉 사 교사들이 개별 음악지도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많은 장애 학생들이 웃음과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한국인 교사로만 출발했지만 지금은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대만, 베트남, 독일, 말레이지아 국적의 교사들이 합류하여 현재 16명의 활동하 고 있다. 플륫,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합창등 음악활동에 19명의 장애 청소년들이 전문교사로부터 매주 수업을 받고 있다.

"제 아이 Eugene이가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의 선생님께 렛 슨을 받고 연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첼로를 연습하고 또 연주하는 모든 과정이 일상생활에 자신 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항상격려해 주고 성원해 주시는 '뷰티풀 마인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며 달라진 아이의 모습에 대해 어머니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작년에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 합창단 지휘자였던 선생

## 연주자에게는 희망이, 청중에게는 감동이 느껴지는 공연

## 2018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 콘서트

아트 저널리스트 채혜미 (cheihyemee@gmail.com)

님이 싱가포르를 떠나게 되어서 제가 후임자로 마지 못해 지휘봉을 잡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너무 음악을 재미있어 하고 즐겁게 잘 따라와 주어서 이제는 도리어 아이들을 만나는 수요일을 제가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합창단원 한 명 한 명이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이 일을 잘 맡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는 지휘자 Tan Zhi Lin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이렇게 고백했다.

피아노 교사인 Lee Kasey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면서, 내 아이들에게 상대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자신의모습을 깨닫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진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것이 발휘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며 재능기부를 통해서 깨닫게 된 소중한 것들을 전해주었다..

"지역신문에서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 기사를 보고 피아노 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사의 기대를 넘어선 학생의 성장을 보면서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라고 말하는 싱가포로 교사인 Kong Yvonne.는 '뷰티풀 마인드 뮤직아카데미' 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된 것이 영광이자 특권이라고 말했다.

5년 동안 '뷰티풀 마인드 아카데미'를 이끌어 온 손미경 원장은 "그간 함께 해 주신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이곳의 특수한 상황상 부득이 하게 귀국하거나 싱가포르를 떠나는 교사들이 있어 전공교사 충원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력과 열의를 가진한인 음악전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인사회의 보다 깊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 공연정보

행사명: 2018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 콘서트

**일 시:** 4월 22일 (일) 오후 5시

장 소: SOTA 콘서트 홀 (1 Zubir Said Drive, L 1, S227968)

도비곳 MRT 도보 5분

입장권: 9172 0563 /admin@bmcsg.org (기부금)